

데스크 시각

“박 대통령님, 이젠 ‘정치’ 좀 하시죠”



박 치 경
서울취재본부 부분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세월호 사고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지지율로만 보았을 때 그는 흔들림이 없다. 나라의 뿌리가 들쭉였던 총각 파에도 출근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영남과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주춧돌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공고한 정치 기반에도 박 대통령 임기 초반은 아이러니다. 한마디로 정치 실종이다. 세월호 사고, 잇따른 인사파동에도 그는 마이웨이로 초지일관 했다. ‘원칙’, ‘정상화’라는 박근혜 스타일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벌어져도 꿈쩍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일관성에도 불행은 계속

됐다. 세월호 참사에도 재난이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인사 패작으로 국민의 불신은 극에 이르렀다. 역대 대통령은 편지에 몰리면 특단의 대책을 애용했지만 박 대통령은 변함이 없었다. 스스로 채운 ‘자존심’이라는 족쇄 때문이었을까? 그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제살리기, 변화 출발점

그러던 박근혜 정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침체일로의 경제 살리기에 소매를 걷어올렸다. ‘불도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수가 됐다. 우선 부동산 부양책으로 내수를 살리기로 했다. 재벌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반면 경기부양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단기에 효과를 낼지, 41조 원이나 쏟아진 돈이 더 큰 화를 불러올지 알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변화 의지에는 일단 눈길이 간다.

다음은 정치다. 정치를 논하려면 먼저 ‘시대정신’을 살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는 빈부·지역·세대의 갈등을 줄이는 게 숙제다. 나라 밖에서는 남북화해협력과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주도권

확보가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빈부격차는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다. 부자는 법을 어겨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 욕심을 부린다. 없는 사람은 하루 세끼 해결도 빠듯하다. 중앙정부에서 인사와 예산을 둘러싼 영호남 차별은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지경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내 갈등 해소와 국제사회에서의 자주적 지위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여겼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명박(MB) 정부부터 정반대였다. 부자에게는 돈이 더 고였다. 이를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감과 갈등에 불이 붙었다. 남북 간에는 연평도 포격이라는 준 전시상태가 빚어졌다. 미국 편향 외교전략으로 동북아에서 곤경을 자초했다.

국민 뜻 수용이 이기는 길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은 더 크다. 경제민주화는 아직 구호를 맴돌고 있다. 호남 소외에 따른 ‘지역 차별병’은 더 깊어졌다. 차라리 회합이라도 가지지 않았더라면 허탈감은 이보다는 덜했을 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 훈풍은 기대난이다. 미·중·러·일에 둘러싸여 우리의 확실한 주권을 지키려는 일도 간단치 않다. 이쯤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부터 청와대 내에서 휴가 중이라는 소식이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사정은 좋지 않지만 머리를 식히며 정국구상을 하려는 것 같다. 휴가 후 국정에 복귀할 박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는 제발 정치를 좀 하시라”는 주문이다. 포퓰리즘이 어서는 안되지만, 야당이 비난해온 ‘통치’(統治)가 더 이상 이어지면 위험하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했다라도, 보수정치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게 된다. 박 대통령의 품격과 나라 위한 충정은 심본 이해한다. 이젠 자신의 원칙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야당의 주장이 옳으면 ‘선제적’으로 수용하라. 대중과 야당을 끌어안으면 박 대통령이 승자가 된다. 박 대통령은 멋진 정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정치인이니까... 국민은 확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unipark@

社 說

광주시 조직개편안 부결, 후유증 우려 크다

윤창현 광주시장이 출발부터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자신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특히 취임 초반 구상한 조직운영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행정력 낭비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가 요청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 가권 2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광주시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개편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행자위는 표결 끝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은 의회 의장과 행정자치위원들을 찾아가 개편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분회의에서 뒤집어져 낭패만 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이례적인 타

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당장 승진 인사 지연과 근무평정 재평가 등으로 내부 혼란과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간부들이 모두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일관한 탓이다. 시의회와 의장도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의원들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면서 자체 갈등을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영표 의장 역시 일부 의원이 분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의장으로서 체면을 구겼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더 이상 우(鴈)를 벌이지 않 된다. 광주시는 이번에도 러난 정부 기능과 소통 부재를 보완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시의회도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파벌로 인한 감정적 대처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하는 게 순리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들 기관은 1995년에 광주까지 아우르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7년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도 싱크탱크의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전남의 동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을 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구원 분리는 시·도 행정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즉 광주는 광역도시행정을 중심으로 첨단과 혁신업과 문화산업 육성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농수산업과 해양관광문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등에 역점을 뒀 연구원도 각자의 방향에 맞게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이 먹혔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진은 광주공향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맛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정록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광주·전남의 두뇌 집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앞날을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익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소록도와 벽돌공장



류 동 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고흥 소록도(小鹿島), 위에서 보면 작은 아기시늉을 닮았다 하여 작은 소, 시슴록 자를 붙여서 소록도라 불리운다. 고흥은 필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소록도가 섬이어서 그저 녹동항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직접 가보지 못한 채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이라는 말만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록대교도 놓여있고, 근처 금산 거금도 섬까지 거금대교까지 개통되어 멋진 해안선을 따라 바로 차로 쉽게 소록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며칠 전 농촌체험 답사를 위해 소록도를 자신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가 보고는 많은 감동과 느낌을 받았다.

소록도 공원으로 가는 길은 해안가를 따라 가는 산책로로 평온하고 아름답기만 하다. 공원에 들어서면 시민들의 신시일반 성금인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 벽화도 보였다. 일제시대 때 한센병 환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공원이 펼쳐지고, 여기저기 붉은 벽돌 건물들이 서 있었다. 한참을 돌아보다 순간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연못 위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이 고동소름끼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인 1933년에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일본인 수호 원장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벽돌공장을 만들어 연간 14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성하였다. 몸이 불편한 원생들에게 벽돌 공장에서 임금을 주는 일자리도 제공하여 처음에는 무난하게 출발하였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전 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록도 벽돌공장에서는 매일 수만 장의 벽돌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강제노역이 시작되었고, 인건비도 대폭 삭감한 채 노동착취를 하였다.

대량으로 많은 양을 빨리 찍어내기 위해 미처 식지도 않은 뜨거운 벽돌을 가마에서 꺼내다 감각이 없는 손들이 화상을 입어 병상이 더 악화되기도 했다.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 벽돌로 지은 감금소에 가두고,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단종(斷種)시술까지 행했다. 도망가기 위해 소록도 앞 바다로 뛰어들어 해엄쳐 가다 죽기도 하고, 또 발견되면 배에서 죽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간 6000kg의 송진을 채취하고 연간 30만 장의 가마니를 생산하고, 토끼가죽과 3만 포의 솜을 생산하는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나중에 수호 원장은 자신의 동생까지 세워 강제로 참배하게 하였지만, 참배시 때 원생 이춘상의 갑에 맞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바로 그 벽돌공장이 있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들어선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이 목적을 달리 만들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동상까지 세우는 욕심은 결국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산입하게 하였고, 본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소록도의 벽돌 공장 같이 당초 목적이 바뀌어 오히려 고난이 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실천을 내 놓아 잘못된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록도 앞 바다와 정원은 슬픔과 편견을 극복해 내는 역사적 교훈이 있는 장소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 좋은 취지로 만든 시설이라 하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지역을 살리는 행사라고 해서 유지를 하지만 운영과정에 치밀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석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도 있다. 과도한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본래 취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대중국 평요우(朋友) 마케팅 추진을



문 창 현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6월 중국을 국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라오 평요우(老朋友：오래 친구)’라고 부르며, 방중기간 내내 극진한 예우를 했다고 한다. 얼마 전 방한한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 특강에서 정율성 선생을 예로 들며 한-중 양국 간의 오랜 교류역사와 우호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율성 선생은 ‘연안송’, ‘팔로군행진곡’ 등 360여 곡을 작곡하여, 중국의 3대 음악가이자 13억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에 중국인이 뽑은 ‘신중국 강건영웅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중국 인구의 40%인 6억 명 이상이 정을

성 선생을 중국의 위대한 음악가, 민족주의자, 항일독립운동가로 인식하고 있고, 80%인 10억 명 이상이 그가 작곡한 노래 한국 이상을 알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정율성 생가를 찾은 중국인들은 생가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감격해했고, 일부는 비석을 아무만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정율성 선생이 만든 ‘연안송’을 합창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몰라도 정율성 선생은 안다고 할 정도인데, 위대한 작곡가 정율성이 태어나고 자란 광주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라오평요우’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중국인들이 ‘라오평요우’라고 부르는 몇 안되는 외국 인물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정치적 고향이 광주이고 보면, 광주는 중국의 ‘라오평요우’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3억 중국인 중에 광주가 그들의 ‘라오평요우’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심지어 광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도 정율성 선생의 고향이 광주라는 것을 알고 새삼 놀라워 할 정도이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놀랄 만큼 폭발적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중국은 2012년에 이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해외관광지출국으로 등극했고, 방한 외래관광객에서도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36%로 처음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 유명여행사인 세정(携程)의 ‘2014 한국관광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올해 태극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여행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밀려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정율성 브랜드를 앞세워 광주가 중국의 ‘라오평요우’임을 알리는 ‘평요우’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율성 브랜드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관광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율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광주를 알리는 최대 기회요인이자 중국 관광객 유치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면에서 최근 광주시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때

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대중국 ‘평요우’ 마케팅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중국인들을 광주로 끌어오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그동안 광주에 정율성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었음에도 중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들에게 ‘정율성의 고향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가장 먼저 힘써야 한다. 둘째, 방치된 정율성 생가 복원사업과 함께, 기념관(기념음악당) 설립, 차이나로드(정율성 스트리트) 조성,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 등과 같이, 중국인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셋째,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다양한 한중 문화·예술의 교차공연을 통해 중국인 전당방문객의 적극 유치 및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양국의 우호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광주가 정율성 브랜드를 앞세운 평요우 마케팅을 통해, 중국 관광객의 메가로 떠오르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서양에선 용보다 뱀을 더 높이 친다. 대부분의 신화와 전설, 그림에서 뱀은 영원한 회귀와 재생의 상징이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뱀 ‘요르문간드’가 좋은 예다. 악신(惡神) 로키의 세자식 중 하나인 요르문간드는 온 세상을 한 바퀴 빙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이 뱀에게 둘러싸인 안쪽 부분에서는 신과 인간, 거인, 악령이 살지만 바깥쪽은 텅 비어 있다. 뱀의 몸이 세계의 끝인 셈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도가 동일 경제·문화·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연구 업무가 중복되고 각자 운영비를 마련하느라 재정 낭비도 심했다. 연구진은 광주공향 문제, KTX, 미래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소속기관의 입맛에 맞는 시책 개발에 급급한 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분리는 미친 짓이다’라는 칼럼(이정록 전남대 교수)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상생론이 힘을 받으면서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7년 만에 재결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함께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이다. 광주·전남의 두뇌 집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앞날을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익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무기

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는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도 용이 되었고 있다”며 눈물짓는 뱀이 바로 이무기다. 하지만, 대부분 이무기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부정을 타 결국 용이 되지 못한다. 197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불렸던 한국이 경제 악화로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최근 발표됐다. 뼈를 깎는 질약과 근검으로 용이 되려는 마지막 순간인데, 규제를 느사로 하는 3류 정치인들 때문에 부정을 탄 것 같아 안타깝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팀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